

세계 77개국 23개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예술품을 담당하고 있는 23명의 외국 큐레이터(Curator, 학예연구관·박물관 미술관의 유물보존 관리에서부터 전시 기획 홍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칭)들이 한국 불교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제4회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이 '한국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3일~13일까지 경주 남산·불국사·동도사·송광사·부석사 등 우리 불교문화의 중심지에서 열렸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해외 박물관에서 한국실(또는 한국 코너)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의 한국 미술·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 행사는 1999년 '한국의 고미술'을 시작으로, 2000년 '한국의 회화', 2001년에는 '한국의 도자기'를 주제로 매년 진행돼 왔다.

### "귀국하면 관람객들에게 한국불교미술 정확히 소개"

#### 동도사 성보박물관

"와-원더풀!" 6일 오전 동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 강의실. 활짝 활짝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마다 큐레이터들의 짧은 탄성이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 고려시대의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수월관음보살의 신비한 미소가 하나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고려시대의 불화'. 큐레이터들은 사용된 안료가 공물성인지 식물성인지, 고려시대 불화가 조선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에게 전문적인 질문을 연신 이어갔다. 강사로 나선 정우택(동국대학교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빠른 손놀림으로 열심히 받아 적었다. 정교수는 "고려시대의 불화들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특징과 함께 무늬가 주가 된다"면서 "오늘 강의가 고려시대 불화를 가장한 자를 구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큐레이터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등 강의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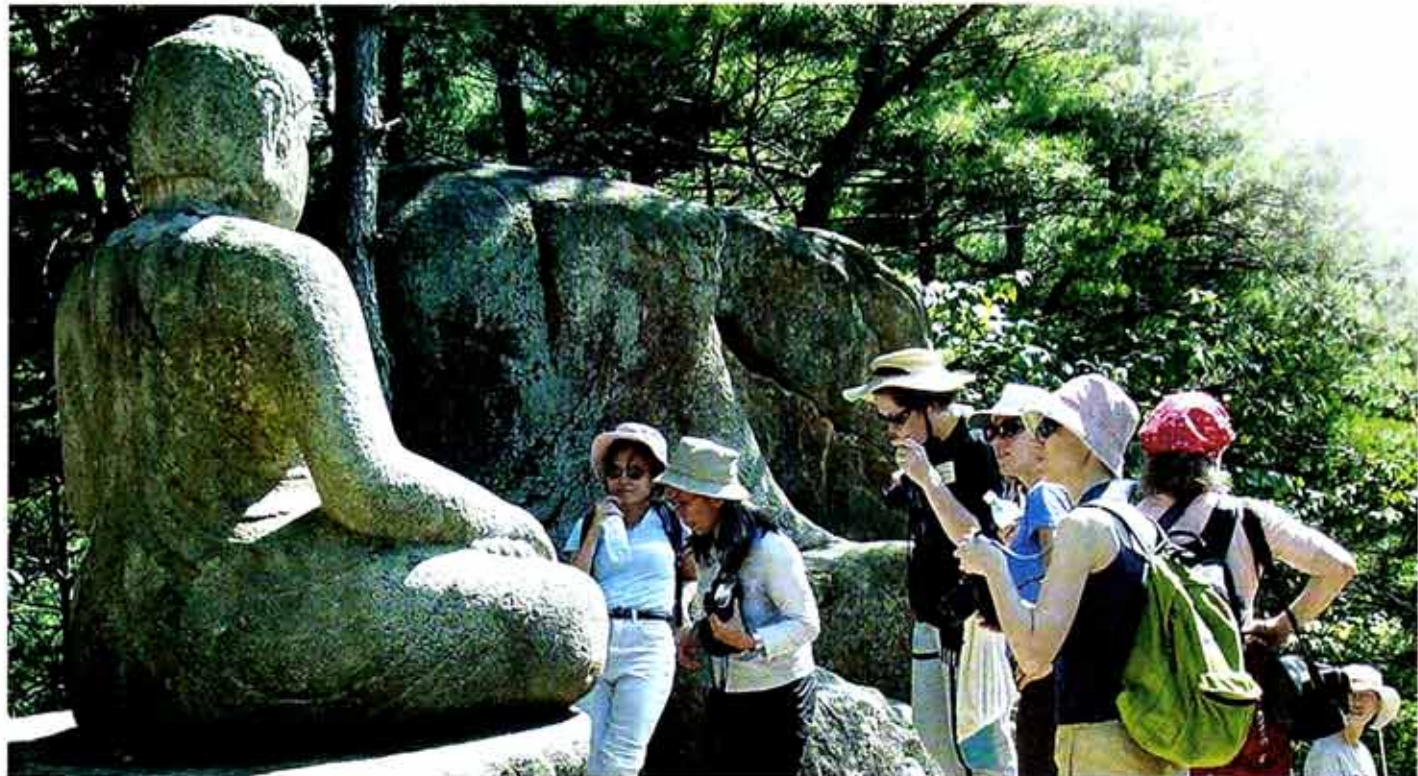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불화"를 주제로 한 오후 강의에서도 큐레이터들의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질문은 계속됐다. 특히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 아시아미술 큐레이터인 로리 반즈씨는 미술관에 소장된 불화 사진을 가져와 강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작품의 연대와 국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91년 문을 열었던 한국실을 내년 1월 확대 재개관할 예정인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의 린다 최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교포 2세. "재개관 준비에 바빠 수석 큐레이터에게 여지를 써 어렵게 참가했는데 너무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간다"면서 "오늘 배운 고려불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시왕도를 다시 살펴보고 연구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와 조각에도 세심한 관심 "신라인들 신앙심에 큰 감명"

#### 경주남산유적 순례

"여기 작은 구멍은 무엇인가요?"  
"이 부처님의 수인은 어떤 의미지요?"



경주 남산 냉골석조여래좌상 앞에 선 큐레이터들이 불상의 곳곳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

## "한국불교미술 원더풀! 원더풀!" 외국 큐레이터 워크숍 현장

### "한국 불교미술·문화재 영문번역 서둘렀으면"

살롯 홀릭 엡 박물관 큐레이터



"사진이나 책에서만 보던 불국사, 분황사, 동도사, 송광사, 부석사 등 한국의 사찰과 그 속에 담긴 한국 불교 미술을 직접 볼 수 있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살롯 홀릭(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한국 미술 큐레이터)씨의 말이다.

살롯은 일본과 동양 예술로 석사학위를 받고, 최근에 '고려시대 동경(銅鏡)의 의미(The significance of bronze mirror in graves of the koryo period)'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의 한국 문화 전문가.

현재 런던대학에서 고대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살롯은 "이번 워크숍에서 배운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지식은 박물관의 한국관 운영에는 물론, 제 강의에도 반영되어 영국인 제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면서 한국 불교 미술과 문화재 등에 대한 영어 번역 작업을 서둘러 해외 박물관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상 가운데 코가 없거나 머리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특남을 위한 민간 신앙 때문입니까?"

"남산의 이렇게 많은 불상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조성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8일 경주 남산. 산을 오르느라 뻘뻘 숨을 들이마시면서, 큐레이터들은 상기된 얼굴

로 안내자인 김구석씨(경주 남산 전문가)에게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경주 남산의 문화재들은 이미 책이나 슬라이드를 통해 여러 번 보아온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늘처럼 한국의 불상을 가까이 살펴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산을 오르기에 힘이 들었지만 큐레이터들은 남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기와 조각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동양미술 큐레이터인 펠리스 피셔씨는 "이 험한 산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을 창조해 낸 신라인들의 신앙심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남산 일정은 생각보다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김구석 선생님의 재미있고 생생한 표현이 오래도록 남산을 기억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크숍의 준비와 진행을 총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유승은 씨는 "불교미술을 배울고는 한국 미술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해외 큐레이터들과 자문단의 요청으

로 선택된 주제였던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참가자들의 열의가 뜨거웠고, 성공적이었던"고 평가했다.

이은자·천미희·박원구 기자



경주 남산 전문가 김구석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외국 큐레이터들.



동도사 관광을 마친 큐레이터들은 동도사성보박물관 관장 범하스님과 진디발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동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괴불탱 그리기에 푹 빠진 신시아 보걸 워싱턴대 미술사학과 부교수.

### 17개국 50개 박물관에 한국실·한국코너 개설

1980년 이전까지 15개에 불과하던 해외박물관의 한국실은, 90년대 들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98년 6월 개관), 영국 대영박물관(2000년 11월 개관), 프랑스 기메박물관(2001년 1월 개관) 등 세계 3대 주요 박물관을 비롯 현재 총 17개국 50개 박물관에 한국실 또는 한국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의 피바디 에릭슨 박물관과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등이 2003년 한국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전 산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삼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궁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삼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삼님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삼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여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